

종합·해설

민주 광주 서구청장 재선 패배 후폭풍

“지도부 왜 반성 않고 침묵하나” 비난

손학규·박지원 말 아껴... 여당과 대비

공천 책임론·당 개혁 요구 목소리 커져

6·2 지방선거와 10·27 재선거 등 두 차례의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배,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지역 민심 이반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 지도부가 처절한 '반성'보다는 어색한 '침묵'을 지키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구청장 재선거 결과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 및 반성과 함께 당내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어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28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충남 홍성군의 충남도청 이전지와 서산시 간월도 버 백수피해 현장을 방문했

다. 또한, 오후에는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민주통합시민행동 창립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자신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참패로 끝난 서구청장 재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한, 서구청장 재선거 후보 공천을 주관한 바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도 선거 결과는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는 지도부가 한나라당과 대비되는 선거 성적을 부각시키는 것이 4대강 사업 반대 등 향후 대외 투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거 결과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적인 반응은 이춘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이 전부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달리는 말에 주시는 아픈 채찍으로 알겠다”며 “민주당이 더 빨리 더 많이 체감할 수 있게 변화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로 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광주 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부른 공천 책임 규명을 포함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 7·28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광주 남구에서 비민주당 야당 단일후보인 민주노동당 오병운 후보가 민주당 장병완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하며 민주당의 아성을 위협한 터여서 민주당에 대한 광주 민심의 이반은 하나의 추세를 굳어지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당내 일각에서는 손학규 대

표 체제의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 결과에 대해 별다른 반성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눈총까지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공천 책임을 묻는 글과 함께 당내 개혁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에 따라 손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서구청장 선거 패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서는 오히려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느냐가 손학규 대표의 미래는 물론 민주당의 차기 총선 및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개헌 논의 일절 가담 않겠다”

4대강 반대 특위 구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개헌 논의와 관련,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는 없다”며 “모든 이슈가 확정되지 않은 개헌 문제로 빨러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일절 그런 논의에 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개헌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전날 최고위원 워크숍에서의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여러가지 개헌안을 갖고 있는 것은 혼란스러운 일어서 한나라당의 통일된 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야 일각에서 개헌 논의를 위한 밀실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정책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제 차원에서의 어떤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당내 4대강 대운하 반대 특별위”를 구성키로 했다며 “위원장 선출되면 약 3명의 간사를 두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와 접촉해 본격적인 대운하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김두관 경남지사와의 충돌 양상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낙동강 사업을 문제삼는 것은 너무나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지자체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그는 “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경남도의 의로운 투쟁을 지지하며 정부가 낙동강 사업권을 강제로 회수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동차 및 쇠고기를 재협상 대상으로 삼아 한국 정부가 양보해서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으나 일부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그러한 것(재협상)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당내 특위를 열고 토론을 거쳐 내주 중의 추후에 협의 최종적으로 당 차원의 통일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10·27 재보선 안도·긴장 교차

“여당이 잘했다기 보다 제대로 일하라는 격려”

한나라당은 28일 10·27 재·보궐선거 성적표가 양호하게 나오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번 선거 승리가 안방에서 이뤄진 것이고 더욱이 야당과 무소속의 선전이 여전히 위력적이었다는 측면에서 즐거워할 일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잘했다기보다 민심을 받들어 제대로 일해보라고 기회를 주고 격려를 보낸 것”이라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긴장감 늦추지 않고 변화와 쇄신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 투표율이 70%가 넘었고, 지난 3차례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던 사실을 일깨우며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켜 주셨다는 사실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후보들도 비교적 잘 공천되지 않았으나 싶다”면서 “요즘 수스케(케이블체널 엘트의 ‘슈퍼스타K2’)의 허락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공천에서도 ‘슈퍼스타 한나라’를 만드는 공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홍준표 최고위원은 “의령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득표율이 57%이고, 창원 제2선거구의 경우도 무소속 득표율이 58%이며, 부산 사상 나선거구는 민주당(후보가) 30%이고 무소속과 합치면 59%, 사상 라선거구는 민주당 득표율이 35%에 무소속과 합하면 58%가 된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는 나아가 2012년 총선·대선과 관련, “경남·부산에서 비(非)한나라당, 반(反)한나라당이 연대할 경우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징표로 보이는 만큼 장기적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작은 선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힘들지만 약간 이겼다고 승리를 자축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며 “민심의 향배는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천·경선·당원제도 혁신 논의

민주당 개혁특위 가동... 위원장에 천정배

민주당이 당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내부 전열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저녁 9시부터 28일 새벽 2시까지 5시간에 걸쳐 여의도 한 호텔에서 최고위원 워크숍을 열어 4대강 사업과 개헌 등 당 안팎의 현안을 조율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춘석 대변인이 28일 전했다.

이 대변인은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 특별위원회는 천정배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 15~20인으로 구성키로 하고 상향식 공천 방안 등 공천 및 경선제도 혁신, 당원 제도 정비, 당원 참여 제고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전국정당화를 위한 영남투위를 포함, 비정규직 특위, 서민생활 특위, 보편적 복지 구현 특위 등도 구성키로 했다. 나아가 당 심크랭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 및 윤리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영입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위원회 위원장 중 여성위원장, 노인위원장,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등 선출하기로 하고, 장애인 위원장과 노동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야권 통합·연대 기구 발족 문제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자”는 취지에서 보류했다.

이 같은 전열 정비는 손학규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변화와 개혁을 구체적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동시에 선명한 진보 노선을 구현할 특위를 가동, 한나라당의 ‘좌클릭’ 움직임을 맞서 확실한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또 집단지도 체제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내부 잡음을 조기에 차단, 수권정당화를 목표로 당 개혁과 정체성 확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당 지도부는 시간 문제로 당직 인사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이날 밤 다시 회의를 소집,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성매수 공무원 연 200명... 솜방망이 징계”

여성부 국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28일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성매매와 성폭력 방지를 위한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성매매 검거건수는 6만3천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성매매 사범 구속률은 1%에 불과한 만큼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옥이 의원은 “이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2007년 5460건, 2008년 6339건, 2009년 678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고 동종 제법률도 15.9%에서 16%, 17%로 오르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도 가능하도록 교육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성매매를 예방하고 단속해줄 책무를 지닌 공무원들이 매년 200명 이상씩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고 있지만 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며 “공무원 성매매는 보다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엔고 현상 속에 일본 원정 성매매가 급속을 부리고 있고 일본에는 라면집보다 불고깃집이 더 많고 그보다 한국 성매매 업소가 더 많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1300곳이 넘는 ‘키스방’이 영업하면서 여대생들을 야채라이트생으로 쓰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여성부는 여성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명목으로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과제에 주를 이룬다”며 “이는 여성부가 이명박 정권 홍보 전위대로 나선 것으로 예산비반 부르는 이 사업은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아프리카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호텔식

OPEN

전기계 골프존 / 대형룸 6실 | 전화예약후에 무료라운딩을 즐겨보세요!! (단, 10월 31일까지)

- 각 룸별 독립공간, 인락한 라운딩 제공
- 필드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는 대화면 스크린
- 골프장의 지면에 따라 타석이 움직이는 최신 무빙시스템
- 정타대회, 하이퍼 대회 등 온라인 상시 골프대회
- 전자식 스윙 분석기 설치

방림사거리! 두레주요
롯데슈퍼센터
효정행안과
동아중고등학교
무등4차복합상가 지하

호남 모든 골프장을 현장의 감동만 담았다! 300만 골퍼가 인정한 현장감!!

예약문의 : 062)671-8900

2009~2010년 S대를 12명 합격시킨

일곡 국민학원 봉선 국민영재학원이 아침치게 펼치는

중3 대상

고1예비 특별반

4개월과정-강사진 8명이 수업

(고등학교 입학 후 최우등생으로)

※개강 11월 3일

각 학원 1개반 모집

(영·수 Test 후 수강 결정)

미감 → 개별상담으로 문의 바랍니다.

강사	언어	수학	영어	과학	국사	
사진	최복수	강동구	주석진	박현철	신경찬	배철훈
	서경대 대학원 전. 양영학원 서울대반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현. 국민영재학원 논술팀장	동국대 대학원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현. 국민영재학원 논술팀장	전. 문성고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고년도 수 II N제	전. 일동학원 전. 일동학원 서울대반 고년도 10-가.나.수 I 수능영어 및 TEPS	전. 양영학원 서울대반 과학과 TEPS 다년간 지도 수능영어 및 TEPS	전. 대영고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공동과학 및 화학 I·II
사진	정성환	박영미	양덕열	이강영	조도현	문승훈
	연세대 대학원 현. 대성학원 서울대반 현. 청솔학원 서울대반	국민학원 국민영재학원 국어 및 문해담당	연세대 경제학과(서울) 전. 서울미래학원 현. 국민영재학원	전. 서울영수학원 전. 일산메르마학원 현. 국민영재학원	전. 연대 영문학 박사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수능영어 및 TEPS	전. 일동학원 서울대반 최고의 국사 수업

최상위권을 위한 변화의 시작!

희망은 목표를 학당마다 더 높여라!!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6:00-7:30		수	학	수	학	언어/논술	수학
7:30-9:00		영	어	영	어	과학/국사	영어

수업시수	과목	시수	주별 수업 시수	월별 수업 시수	비고
영어	영어	4 time (8시간)	4 time (8시간)	16 time (32시간)	수능영어 + TEPS
수학	수학	4 time (8시간)	4 time (8시간)	16 time (32시간)	10-가,나 + 수 I + 수 II
언어	언어	2 time (4시간)	2 time (4시간)	8 time (16시간)	고등논술 + 수능문학 + 비문학
과학/국사	과학/국사	2 time (4시간)	2 time (4시간)	8 time (16시간)	공동과학/국사

일곡동

국민학원

574-0101

일곡 롯데슈퍼 옆

봉선동

국민영재학원

672-0483

봉선 마트 옆